

순천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캠프'

4박 5일간 상해와 항주 일대 지역 문화유적 탐방 미디어 특화 중국 절강전매대학교 교류 협정 체결

국립순천대(총장 이병운)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최근 4박 5일간 중국 상해와 항주 일대에서 지역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절강전매대학교와 콘텐츠를 교류하는 '글로벌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글로벌캠프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과-비교과 성과 결과물 등 지역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고자 영상콘텐츠 및 미디어 특화 대학인 중국 절강전매대학교의 교류 협정을 겸하여 추진되었다.

글로벌캠프에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

재양성사업단 조래철 단장과 인문예술대 방극철 학장 등 책임교수와 교직원 9명, 순천대학교 재학생 16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가했다.

방문단은 상해와 항주의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상해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상해예원 △도자기 문화의 생산지 △노신생가 등을 탐방하고, 지역문화 콘텐츠를 조사했다.

이후, 중국 영상 및 방송매체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손꼽히는 절강전매대학교의 학생들과 국립순천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콘텐츠

결과물을 공유하는 '문화유산, 환경보호, 문화홍보' 작품 전시 및 현장 교류를 진행하고, 양 대학 간의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교 협정은 △학생 성과물 경진대회 및 교수 포럼 운영 △교육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문화 소재 및 관련 전공 출판물 및 콘텐츠 상호 교환 △최신 연구 동향 및 교육 정보 교환 △공동 연구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래철 단장은 "역사·문화 유적 탐방과 교류를 통하여 양국을 서로 이해하고 상호협력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2차년도에는 학생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지역문화콘텐츠 조사탐방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고, '꿈별 서재' 도서관 개관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화순고등학교(교장 강대인)는 지난 6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리모델링해 완성된 '꿈별 서재'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개관식에는 도서관 공간재구성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학생(학생회, 서담 동아리 등)학생, 교직원 TF위원, 축진자와 설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년간의 공간재구성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소회를 나누고 '꿈별 서재' 개관을 축하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도서관 공간재구성 프로젝트는 평소 학생들의 도서관 공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간재구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인사이트 투어(우수 도서관 탐방) 및 워크숍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소통하며 5차례 계획안 수정 끝에 설계도를 완성하였다. 도서관 명칭과 문구 또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102개의 명칭과 95개의 문구 후보 중, '꿈별

서재' 명칭과 '너와 나의 꿈과 별이 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학생회 회장 김OO 학생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의견을 수렴하느라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결과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도서관이 탄생하여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화순고 강대인 교장은 "학생들이 '꿈별 서재' 도서관에서 책과 더욱 친해지고 친구들과 책으로 소통하며 책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고등학교는 2023년부터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공간재구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과 다양한 교과목 개설, 최소성취수준 예방 및 보장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놓여온 일반 고등학교에 운영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중앙초, 3, 5학년 대상 'The 공감교실' 프로그램 운영

새 학년 새로운 친구들과 긍정적 대인관계 맺기 위해 실시

곡성중앙초등학교(교장 김갑용)는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3, 5학년을 대상으로 2024. 공감과 소통의 비폭력 대화 「The 공감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공감과 소통의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고, 새 학년 새로운 친구들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한 학급당 전문 강사 2인이 배치되어 강의와 실습으로 공동 진행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활동에는 '비가 오는 날 그림그리기', '선을 넘지 마!', '너와 나의 경계 알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심리분석 및 친

구의 경계선 존중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과 풍선 놀이 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교실 분위기 속에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졌다. 「The 공감교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2일, 27일 1, 2, 6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OO 학생(4학년)은 활동을 마친 후 "새로운 교실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 걱정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함께하며 더 친해지게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고 4학년 임환진 담임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긍정적 교우관계를 맺



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늘 즐겁게 참여해 준 반 친구들이 대견스럽다." 라고 말했다.

곡성교육지원청 손소영 장학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곡성지역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목포도서관, "책과 함께 신나게 놀아 볼까!" 독서여행 운영



목포도서관(관장 김춘호)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서부권역 3개 지역(목포, 완도, 신안)을

서부권역 초등학교 22교 600여명 대상

대상으로 교과탐험 독서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탐험 독서여행」은 목포청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22교 35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별 5~10회씩 운영한다. 완도·신안 도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완도 노화도, 소안도 등 도서 지역에 독서지도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초등교육과정 연계 도서 읽기, 관련 독서 체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도서관 공간과 도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독서력을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서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인문교육,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교수학습자료 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